

오피니언

월/요/광/장

민경한



숙담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풍자와 비관, 교훈 등을 담은 짧은 격언이다. 숙담 중에는 우리가 생활하는데 귀담아 듣고 생활의 지침으로 삼을 만한 것들이 매우 많다. '꿈든 탐이 무너지랴',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등은 주옥같은 숙담이다.

그러나 숙담을 듣다보면 잘못된 숙담 2개가 떠오른다. 그것은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않는다'와 '깨끗이 벌어서 정승 같이 쓴다'는 숙담이다.

보통 주변에서 원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정도를 걸으면서 청탁을 거절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을 '고지식한 사람',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않는다'는 숙담을 인용하며 주위의 부탁도 들어주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 것을 충고한다.

그러나 이 숙담은 잘못됐다. 어쨌든 적지만 빙어, 도래무지 등 깨끗한 물에 사는 고기도 많이 있다. 고기가 많이 사는 물이 꼭 좋은 것만도 아니다. 고기가 적게 살더라도 바닥이 흰히 내려다 보이는 깨끗한

개울이나 산속의 샘물에 있는 수초와 자갈 등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맑아지며 산뜻하고 시원함을 느낀 경험이 있을 것이다. 고기가 좀 많이 산다고 혼탁한 저수지나 더러운 물이 흐르는 시냇가 좋다고

청부(淸富)가 그리워지는 세대

느껴지지도 않는다.

시커먼 돈에 매수되고 친지 등 온갖 연줄에 의한 부정합 청탁 들어주고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고 불의와 타협하며 대충대충 편하고 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융통성 있고 인정 많고 그렇게 좋은 사람들인가. 이런 사람들 틈 속에서 피곤함과 불균형을 감수하면서 원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정도를 걷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며 깨끗한 물속의 수초나 조약돌, 몇 마리의 고기처럼 산뜻하고 멋있지 않은가.

'깨끗한 물에도 사는 고기가 있다', '고기가 없더라도 수초와 자갈이 있는 깨끗

한 물이 좋다'는 속담으로 바꾸고 싶다. 또 하나 잘못된 속담으로는 '깨끗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를 들 수 있다. 사전적 의미는 돈을 벌 때는 천하게 벌더라도 쓸 때는 떼떳하고 보람 있게 쓰라는 것이다. 그러나 돈을 쓰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돈을 버는 방법이 훨씬 중요하다.

이 속담이 언제부터 전해 내려오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 속담이 생길 무렵에는 돈을 버는 방법이 그렇게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방법이 거의 없어 약간 힘들고 천하게 벌더라도 가지있게 쓰라는 의미였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변하여 뇌물, 횡령, 부동산 투기, 도박, 마약, 매춘, 범법으로 얻은 수익 등 더럽고 불법적으로 편하게 버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돈을 아무리 깨끗하고 보람있게 쓰더라도 그 돈이 불법적이고 부도덕하게 번 돈이라면 전혀 가치가 없는 일이다.

정직인이 뇌물로 받은 돈을 장학금으로 내놓고, 조직폭력배가 영세 상인들로부터 갈취한 돈을 양로원에 기부한다고 하여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일 수 없다. 자녀 과외비를 벌기위해 노래방 도우미로 나간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다. 심지어는 매춘

까지 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렇게 벌어서 자녀 과외시켜서 명문대 들어가면 무엇 하겠는가.

5공과 6공 시절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이 정치인이나 재벌들로부터 뺏은 거액의 돈 중 일부를 장관이나 측근들에게 전 별급이나 떡값으로 줄 때 때 사람의 행태를 비교 평가한 적이 있었다. 전대통령은 일반사람의 생각을 넘어 동그라미가 하나 더 있을 만큼 노대통령보다 몇 배나 더 많은 돈을 주어 남자답고 배짱이 크다고 미화하곤 했다. 전대통령이 자신이 뺏 흘러 받은 월급이나 재산을 그렇게 많이 나누어 주었다면 정말 칭찬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벌들로부터 뺏어 나쁘게 축적한 돈을 측근들에게 많이 준다고 해서 멋있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풍조다.

사람들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돈을 벌려고 하고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관대한 경향이 있다. 돈도 정승같이 뺏 흘러며 열심히 일하여 벌어야 한다. 돈을 아무리 정승같이 쓰더라도 깨끗이 천하고 더럽게 벌면 절대 안 된다.

요즘 깨끗하게 돈을 벌어서 부를 축적하는 청부(淸富)가 많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 청부가 그리워지는 세상이다.

<변호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지방 공기업 첫 퇴출 공공개혁 계기돼야

정남진장흥유통공사가 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청산명령을 받았다.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방공기업에 대해 첫 강제퇴출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행정자치부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 등으로 국민의 혈세만 축내는 대표적인 '철밥통'으로 지탄받아 온 지방 공기업에 대한 개혁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정남진장흥유통공사는 2003년 당기 순손실이 6천400만원이었으나 매년 손실액이 늘어나 지난해에는 3억4천만원에 이르는 등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또한, 부적절한 회계처리와 부실감사로 손실을 키워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공기업의 부실경영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남진장흥유통공사의 일은 아니다. 지난해 감사원이 지방공기업 100곳에 대한 본 감사 착수에 앞서 실시한 예비감사에서 공기업 설립에서부터 지배구조, 조직 및 인사관리, 후생

복지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방만한 경영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난 바 있다.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자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공기업이 마치 지자체 산하기관처럼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정원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직원을 대폭 늘리는 지방 공기업까지 있었다. 편법으로 각종 수당을 편성해 임직원들 지급했다가 적발된 경우도 흔했다.

지방공기업의 부실 경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부실에 따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의 몫이기 때문이다. 더욱 엄격한 경영평가를 통해 과감한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특히 만성적인 부실에 시달리는 지방공기업은 퇴출해야 마땅하다. 이번 정남진장흥유통공사의 첫 퇴출이 지방 공기업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개혁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연례행사 '황사테러' 피해 최소화하자

광주와 전남을 비롯 전국을 뒤덮은 황사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특히 휴일인 1일 전국에 황사경보가 발령되는 등 올해 최악의 황사가 한반도를 엄습했다. 전국에 경보가 내려진 것은 기상청이 황사특보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2년 4월10일 이후 처음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에 유치원과 초·중·고에 대해 임시휴교나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도록 긴급 지시했고 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를 가둬 운행으로 통행에 혼잡을 빚었다. 전국의 유원지는 썰렁했고 거리에 나온 시민들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쯤 되면 가히 '황사테러'라 할 수 있다.

봄철 황사는 연례행사가 됐다. 몽골 고비사막과 중국 내이몽구(內蒙古) 등에서 발원한 황사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수와 강도가 크게 늘어났다. 하늘을 희뿌연 미세먼지로 뒤덮은 강한 황사는 국민의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황사는 자연현상을 넘어 '재앙'이다. 호흡기 환자가 속출하고 있고 축산과 집단단상 등 경제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특히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알루미늄과 납, 카드뮴, 크롬 등 중금속이 대기의 오염도를 높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황사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액이 7조3천여억원에 이른다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다.

중국과 한국, 일본 등 황사 피해국들은 중국 내륙의 사막화를 늦추기 위해 공동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역부족이다. 황사 발원지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중국 북부지역과 만주 등 동쪽으로 확대되고 있다. 황사 발생이 빈번해지고 강도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정부와 지자체, 국민들이 노력할 수밖에 없다. 기상청은 예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보건 당국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국민들도 행동요령을 생활화해 스스로 건강을 지켜야 할 것이다.

無等鼓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때마다 화제가 되는 뉴스가 있다. 바로 가난한 공직자들의 사연이다. 올해의 인물은 문용호 전 특허법원 부장관사였다. 그는 지난 3월 30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가 발표한 122명의 고위 법관 및 고위 공무원 중 재산 총액 '골짜기'를 기록했다.

그가 신고한 전 재산은 4천343만원. 고위 법관의 평균 재산 16억5천810만원의 40분의 1이었다. 물론 공직자라고 해서 과도한 청빈이 자랑은 아니다. 그도 재산 골짜기라는데 씩씩스러웠다.

그는 '봉급 받아 호화롭게 살아온 것도 아닌데 열심히 재만만하다 보니 재테크에 실패했다'면서도 '대출 받았지만 집도 한 채 있고 가난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말 부장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로 변신했다. 그의 퇴직이 경제난 때문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필자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문 부장관사와 같은 경우는 극단적 예외에 속한다. 대부분의 고위 공직자들의 재테크는 이번에도 서민들

의 허를 내두르게 했다. 공개 대상자 1천52명 중 지난 한해 동안 재산을 불린 공직자는 전체의 86.7%인 912명에 달했다.

공개된 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은 15억 1천600만원. 그중 절반 이상인 58%가 1년 사이 1억원 이상 재산을 늘렸다. 서민들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액수다. 또 절반이 넘는 571명(53.9%)이 부동산

값 폭등의 진원지인 이른바 '버블 세분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공직자라고 돈과 무관하게 살 수는 없다. 그러나 중산층이 몰락하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한국적 상황에 비취할 때 공직자들의 과도한 재테크는 서민들

들을 슬프게 만든다. 재테크를 넘어 공직자가 탐욕에 빠지면 사회 전체의 건강성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 공자는 '부(富)하면 어질지 않다'고 말했다. 가계를 책임진 생활인으로서도,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로서의 중용적 자세가 절실한 시절이다.

/오승중 정치부장 jsoh@kwangju.co.kr

공직자의 재테크



법조 칼럼

김규장



'민원업무의 혁신'은 현재 법원의 최고 역점 사업 중의 하나다.

광주지방법원도 진작부터 새로 민원실을 쾌적하게 꾸미고, 내부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하며 구성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많은 새로운 방안 ▲원스톱 민원서비스팀 운영 ▲휴대전화 메시지 통지제도 ▲관결 선고결과 게시제도 ▲3차 통화시스템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은행이나 구청, 서비스업 등에서 수준 높은 서비스를 경험해 본 주민들의 법원에 대한 만족도는 아직도 그리 높지 않은 것 같다. 광주지법 법관들은 지난 3월 19일부

팀장 김주현 계장은 능숙하게 민원인 안내를 했다. 속스러웠다.

관사라고 해도 모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한 아주머니가 경매사건에 돈을 내려 왔다고 한다.

사건번호도 모르고, 본인이 경락받아서 그 대금을 내려 온 것도 아니라고 하니, 무슨 상황인지 짐작할 할 수가 없다.

혹시나 해서 그 아주머니 이름으로 검색해 사건번호를 찾고, 확인해 보니 경매는 아직 진행 중에 있었고, 이 분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였다.

지켜보던 김계장이 재빨리 해당 경매계로 전화해 보고 비용추가에법령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1시간이 지난 뒤 창

법원 민원실체험 해보니...

터 짧은 시간이지만 민원창구에 나가 직접 민원인을 만나는 일일민원체험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일일 민원체험의 첫날 당사자는 필자였다. 청사 출입문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1층 로비의 원스톱 민원서비스팀 창구에 앉았다.

약 20년간 주로 법정에서만, 그것도 사건내용을 파악한 상태에서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재판 당사자를 만났던 것과는 다른 상황이다.

민원인에게서 처음 찾는 창구에서 대하게 되는 사람이 법원에 대한 첫 인상을 좌우하기 때문에 잠시 긴장이 됐다. 고소취하에서 이의신청 등 많은 민원인들이 이날 법원을 찾았다.

민원 업무가 처음인 필자는 민사종합민원실의 분담 업무만 알았을 뿐 창구가 몇 개인지, 각 창구별 구체적인 업무가 무엇인지 몰라 당황하기도 했다. 하지만, 함께 민원 업무를 봤던 민원

구를 찾는 민원인들이 줄어들자 옆 창구의 다른 직원들에게도 눈길이 갔다. 이들에게는 매일 반복되고 조금은 단순해 짜증스러운 일이라면, 평소의 모습 그대로 무엇인가 열심히 설명해주고 있다. 원스톱 민원서비스팀은 정말이지 잘도 하게 빠른 믿음직한 얼굴들로 구성됐다.

잠시 동안 단순한 민원을 처리해 본 것에 불과하지만, 법원 민원인은 최후로 법원에 와서 법적인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나쁜대로의 절박한 사정이 있었음을 새삼 확인하였다.

따라서, 그 민원이 관결로 종결되어야 하는 경우이든 결정으로 그치는 경우이든 간에, 법원의 재판은 당연히 그들의 사정을 충분히 들어주는 재판이 되어야 함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는 최근 법원이 추구하고 있는 심리방식과도 일치한다.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기고

이영찬



올해 광주지역 서울대 합격자는 모두 130명으로 전체 합격자 3천378명의 3.85%를 차지했다. 다른 지역의 경우 서울이 1천332명(39.43%)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7.37%, 인천 4.59%, 대구 6.39%, 대전 4.00%, 울산 2.14% 등이었다.

다른 지역에선 88명이 합격해 1위를 차지한 학교부터 15명의 합격자를 배출해 21위를 한 학교까지 있지만, 광주는 7명을 합격시킨 학교가 3개교뿐이었다.

이러한 수치로만 볼 경우 당연히 '실력 광주'의 위상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과거에 비해 우리 지역 학생들의 실력이 크게 떨어진 것은 아닌지 불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실력이라는 개념이 입시만이 아니고 '지·

력시험 채점 결과 1등급 비율의 전국 평균이 4%인 반면에 우리 지역 학생의 경우 언어 영역은 1등급 7.09%, 수리 '가' 6.35%, 수리 '나' 6.37%, 외국어(영어) 6.06% 등 평균 6.51%로 나타나 전국 최고 수준이다.

더욱이 자립형 사립학교, 자율학교, 외국어고교가 없는 우리 지역의 경우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학교는 없지만 일반계 공·사립고교 45개 학교 중 86.7%인 39개 학교에서 고부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광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학교 간에 학력격차가 훨씬 적고 내실 있는 우수학교가 집중돼 있으며 학력 편중화가 잘

'실력 광주'에 대한 오해와 진실

던·체'를 포괄하는 전인적인 것으로 파악해야 하겠지만 대학 진학자료, 그것도 일부대학 성적이 크게 돋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밀한 시각으로 분석해 보면 우리 지역 학생들의 성적이 오히려 앞서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능 응시자 중 서울대 합격자 비율을 보면 서울 0.82%, 광주 0.71%, 대전 0.70%, 대구 0.66%, 부산 0.59%, 울산 0.46%, 인천 0.44% 등이다. 특목고에서만 396명을 합격시킨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와 비교하면 가장 높은 서울대 합격률이다.

또한, 서울지역 주요 대학 합격자에 있어서도 고려대에 196명이 합격해 전 총 합격자 대비 4.62%, 연세대에 146명 합격해 3.68%를 각각 차지했다. 특히 경찰대학은 전체 정원 120명 중 우리 지역에서만 20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

이투어지고 있어 내년 입시부터 더욱 강화되는 내실중심의 대입전형에 있어 유리한 입지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어 고등학교의 설립과 진학정보센터 운영도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우리 지역의 다양한 교육수요와 진학 욕구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

광주학생들의 실력을 과소평가해 행여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의 사기가 저하되나 않을까 하는 일말의 염려가 앞서기도 하지만, 어느 도시보다 높은 교육열로 광주교육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잠재력이 많은 신뢰를 주실 것으로 기대해 본다.

올해 '실력 으뜸, 청렴 으뜸'을 비전으로 내걸고 새롭게 출범하는 우리 교육청의 포포트로는 3.68%를 각각 차지했다. 특히 경찰대학은 전체 정원 120명 중 우리 지역에서만 20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광주교육청 부교육감>

부실한 점심, 예식장 횡포로 혼주가 욕먹는다

친척 결혼식이 있어 여수에 갔다가 횡포한 경험을 했다. 300인분의 식사를 예약했고, 음식이 모자랄 것에 대비해 50인분의 여유 식사를 준비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한다.

예식은 오후 2시였지만 식이 시작하기 전에 대부분의 하객이 식당에 갔다. 그러나 식권을 내고 들어갔지만 음식이 없어 되돌아가는 손님이 발생했다. 예식이 끝난 뒤 다시 식당에 갔는데 인기 있는 음식은 이미 바닥을 보였다.

또 음식이 떨어진 경우 약속된 음식을 제공했어야 함에도 김밥과 샌드위치 등 값싼 음식으로 대체되기까지 했다.

이것은 혼주가 하객들에게 아주 큰 결례를 하게 만드는 것이다.

결혼식에 오는 분들에게서 '손님 모셔다 음식도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다'는 질책이 쏟아지지 않게끔 예식장들이 이익만 생각할게 아니라 양심껏 제대로 영접해주길 바란다. <이중섭·광주시 동구 호남동>

얼마 전 방송에서 연예인 대학 특례입학과 대학 생활에 대한 프로그램을 시청했다. 한번도 출석하지 않은 연예인이 대다수며, 학교 측에서 참가하거나 어쩌다 한두번 제출하는 레포트로 출석과 학점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사실 레포트조차도 수업하면 나오지 않고 쓸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짜깁기하거나 매니저가 다 써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많은 대학이 학교 홍보를 조건으로 연예

인에게 학점과 졸업을 약속하는 이른바 '거래성 계약'을 기획사와 체결한다고 한다. 학교측은 학교 홍보와 이미지를 위해 연예인을 입학시킨다고 하지만 문제점이 적잖다.

특히나 그런 연예인들은 서울의 상류급 대학에 다니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지방에서 어렵사리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준다.

상업이 연예인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하는 도구로 전락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정형창·광주시 광산구 왕동>

광주일보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始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편 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경 제 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7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8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총 무 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 고 국 2200-521 판 매 부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시 설 2 부 2200-552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